

‘명태·꽂치 사라지는 한반도’ 온난화에 어류지형 급변

지구 온난화 등 기후 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현상이 한반도에서 유독 뚜렷하게 나타나면서 주변 해역에서의 어종 어획량도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과거 동해바다의 단골 손님이었던 명태와 꽂치 등은 점점 모습을 감추는 추세다.

25일 통계청이 발표한 ‘기온(수온)변화에 따른 주요 어종 어획량 변화’에 따르면 수온 상승으로 인해 1990년 이후 연근해 해역의 어획량은 난류성 어종이 증가하고 한류성 어종이 감소했다.

대표적인 한류성 어종인 명태의 어획량은 1970년 1만3418톤에서 지난해 1톤으로 급감했다. 꽂치 역시 2015년 366톤에서 757톤으로 줄었고 갈치류는 1만6110톤에서 4965톤으로 감소했다.

반면 난류성 어종인 고등어류는 1970년 3만3256톤에서 2017년 11만 5260톤으로 크게 늘었다. 멸치(5만 4047톤→21만943톤)와 살오징어(7만 2142톤→8만17024톤)의 어획량도 큰 폭 증가했다. /김영태 기자



NH농협생명 전북총국

‘모두레 금융·경제교실’ 운영

NH농협생명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장수농협(조합장 김용준), 상관농협(조합장 이재욱)이 운영하는 ‘모두레 어린이 금융·경제교실’이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25일 밝혔다.

NH농협생명전북총국은 지난 22·25일 각각 장수초등학교, 남관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모두레 어린이 금융·경제교실’을 운영했다.

‘모두레’는 함께를 뜻하는 모두와 상부상조 정신을 뜻하는 두레의 합성어로 ‘모두레 어린이 금융·경제교실’은 농협(협동조합정신)을 바탕으로 한 경제, 금융의 중요성을 화폐 게임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통한 농촌지역 어린이들에게 전달하는 교육이다.

또한, NH농협생명전북총국장은 “조기교육을 통해 경제에 대한 기본 개념과 금융현상을 배우고 경제활동에 대한 어린이들이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습관 건전한 소비생활을 영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내부거래 여전”

공정위 “규제 이후에 내부거래 비중 하락했다 증가세로 반전”

규제 사각지대 회사 내부거래 규모·규제 회사보다 2.9~3.9배 높아

일감 몰아주기 규제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회사의 경우에도 높은 내부거래 비중 현상이 지속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일감 몰아주기 규제 도입 이후 내부거래 실태 변화에 대한 분석결과를 25일 발표했다.

일감 몰아주기 규제는 대기업집단의 일감몰아주기 관행으로 인해 총수일가의 편법적 지배력 확대·경영권 승

계를 막기 위해 2014년 도입됐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를 넘는 기업이 규제 대상이다.

규제 도입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총수일가가 직접 지분을 보유한 회사에만 규제가 적용되고 상장회사의 규제 기준이 비상장회사와 달라 자회사 설립·지분 매각 등을 통한 규제 회피 의혹이 제기됐다.

실제 공정위가 이날 발표한 내용을 보면 규제 도입 직후 일시적으로 대기업 집단 내부거래 규모 및 비중은

감소했다가 증가 추세로 전환됐다.

2013년 15.7%였던 내부거래 비중은 규제 도입 직후인 2014년에는 11.4%로 감소했다. 그러나 2015년 12.1%, 2016년 14.9%, 2017년에는 14.1%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5년 연속 규제대상에 포함된 56개사의 경우에도 2014년 11.6%였던 내부거래 비중이 2017년에는 14.6%로 증가했다.

규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높은 내부거래 비중을 유지했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2013년 15.7% 내부거래 비중이 지난해에는 21.5%까지 증가했다.

특히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인 상장사는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와 비교해 내부거래 비중은 작았지만 평균 내부거래 규모는 2.9 ~ 3.9배 큰 것으로 집계됐다.

규제 도입 이후 지분을 하락 등으로 규제대상에서 제외된 회사 중 계열사로 남아있는 8개사의 경우 내부거래 비중은 15.7%에서 내부거래 금액이 26.8%로 증가했다.

모회사의 지분율이 50%를 넘는 규제대상 회사의 자회사는 규제 도입 당시는 물론 그 이후에도 규제대상 회사와 유사한 수준의 내부거래 규모와 비중을 유지하고 있다

상장사가 비상장사에 비해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 장치도 원활히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규제 도입 당시 상장사는 상대적으로 감시·통제장치가 갖춰져 있는 점을 고려해 비상장사 대비 완화된 기준을 적용했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사외이사 비중은 꾸준히 상승 50%를 넘어서고 있는 반면 사외이사의 반대 등으로 원안결 되지 않은 이사회 안건 비율은 여전히 1% 미만에 불과했다.

상장계열사의 이사회 내 각종 위원회 설치 비율도 전체적으로 늘고 있지만 내부거래위원회에 상정된 안건(208건) 중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은 안건은 한건도 없었다.

/김영태기자

청각장애 어린이 위한 현대차그룹의 신기술 아이디어

현대자동차그룹 ‘재질재질 스쿨버스’ 영상, 2018 칸 국제광고제 동상 수상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한 미래 신기술 캠페인 영상 ‘재질재질 스쿨버스(Chatty School Bus)’가 지난 18일부터 22일(현지시간)까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축제인 ‘2018 칸 라이언즈 인터내셔널 페스티벌 오브 크리에이티비티(Cannes Lions International Festival of Creativity, 이하 칸 국제광고제)’에서 PR 부문 ‘동사자상(Bronze Lions, 이하 동상)’을 수상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 따르면 ‘재질재질 스쿨버스’ 영상은 현대자동차그룹 R&D 아이디어 페스티벌(R&D IDEA Festival)에서 선보인 ‘스케치북 윈도우’ 기술을 기반으로 제작됐으며,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다니는 어린이들이 통학버스 안에서 유리창을 통해 소통하고 즐거워하는 새로운 형태의 자동차 경험을 보여주는 영상이다.

지난 2017년 공개된 이 영상은 유튜브 1,390만 조회수(국문 885만, 영문 505만 조회수)를 기록하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높은 반응을 이끌어 냈으며, 2017 대한민국 광고대상 ‘금상’ 수상, 올해 3월 ‘국민이 선택한 좋은 광고상’을 수상하는 등 호평을 받았다. 이번 프로젝트에 활

활성화된 ‘스케치북 윈도우’에 그린 그림이나 글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 있고, 개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확인



현대자동차그룹이 제작한 미래 신기술 캠페인 영상 ‘재질재질 스쿨버스(Chatty School Bus)’가 프랑스 칸에서 열린 세계 최고 권위의 광고축제에서 PR 부문 ‘동사자상(Bronze Lions, 이하 동상)’을 수상했다.

용된 ‘스케치북 윈도우’ 기술은 2016년 현대자동차그룹 R&D 아이디어 페스티벌에서 대상을 받은 기술로 김 서린 창문에 낙서하는 것을 모티브로 만든 기술이다.

창문에 김을 서리게 하듯 입김을 불면 기계가 센서가 이를 인지해 자동차 창문이 마치 김이 서린 것처럼 뿌연게 변해 ‘스케치북 윈도우’가 활성화되고, 여기에 자유롭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릴 수 있다.

활성화된 ‘스케치북 윈도우’에 그린 그림이나 글은 클라우드 서버에 저장할 수 있고, 개인 PC나 스마트폰을 통해 어디서나 확인

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에게 전송도 가능하다.

영상 속에서 어린이들은 ‘스케치북 윈도우’를 통해 손글씨로 다른 화석의 친구와 소통하고, 부모님 스마트폰에 손 글씨 메시지를 보내는 등 자동차를 통해 다양하게 사회와 소통하는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재질재질 스쿨버스’ 전 과정은 다큐멘터리 형식의 영상으로 제작됐으며, 현대자동차그룹 유튜브(https://www.youtube.com/watch?v=7ba_ZreTID)를 통해 만나 볼 수 있다.

/원주=이종복기자

전북달팽이장터, 정부 재정기여 우수사례 선정

우체국 주도 동반성장 혁신 모델 개척 지난해까지 60억원 매출 달성

전북지방우정청은 최근 농어촌 생산농가의 판로를 돕기 위해 G마켓 등 11개 오픈마켓에 개설한 전북달팽이장터가 기획재정부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에서 재정개선포화 최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25일 밝혔다.

전북달팽이장터는 농어촌 생산농가의 판로를 돕기 위해 2016년 4월 오픈마켓에 개설된 장터로서 14개 시·군 우체국 상품개발담당관(MD)을 지정하여 마케팅역량을 키우고 지자체 등에서 마케팅 지원예산을 받아 지역의 우수농산물 판매촉진에 노력했다.

전북지방우정청 김성철청장은 “전자상거래 운용 역량이 없는 농어촌의 농산물 판로를위해 전북달팽이장터 자체



브랜드를 개발했다. 전북달팽이장터가 우체국의 상품개발, 마케팅 역량과 지자체 협조를 통한 농산물 판로개척 성과에 높은 평가를 받아 매우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달팽이장터는 지난해 12월 행정안전부와 (주)이베코리아가 공동 주최하는 ‘제9회 대한민국 e-마케팅 페어’에서 거래혁신(Commarce Innovator) 특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김영태기자

전북은행 - 전주덕진소방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본점에서 전주 덕진소방서와 연계한 화재 대피 훈련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훈련은 고층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객 및 직원의 신속한 대피, 화재 진압, 긴급상황 발생 시 대응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대피 인원을 현장에서 파악하고 부상자나 고립된 인원구출에 필요한 내부 설계도 및 배치도 등의 정보를 현장 대응단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방대원에 의한 체계적인 구조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윤리 형식적인 요인을 과감히 제거

하고 실질적인 화재발생시 행동요령 및 진압절차 위주로 훈련을 강화하고 있다.

전북은행 안전관리실 김천기 실장은 “훈련은 실천처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건물 내에서 근무하는 의무직업자를 포함한 모든 인원의 적극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소방시설법 제22조에 따르면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은 관할 소방서와 연 1회 이상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전북은행은 1급 소방안전관리 대상물로서 매년 덕진소방서와 합동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김영태기자

전주매일 화재예방캠페인



무심코 버린 인화물질

산불의 원인이기도 합니다